



북미

한글학교 역사문화 수업자료

산





활동지 1

한국의 산



다음은 한반도의 산의 특징과 암호가 담긴 표입니다.
산의 특징과 암호표를 보고 알맞은 산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암호표

	A	B	C	D	E
1	남	리	요	고	두
2	금	영	지	태	북
3	악	신	소	한	전
4	선	라	세	설	명
5	기	호	백	제	강

	가을에 단풍으로 물든 모습은 꼭 봐야 할 풍경 중 하나다.	D4
	울산바위나 흔들바위처럼 멋진 바위가 많다.	A3
	산의 정상에는 옛날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다.	D2
	석탄박물관에서 특색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C5
	남한에서 가장 넓고 큰 산이다.	C2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수달 등이 산다.	B1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D3
	산의 높이에 따라 아열대 기후, 온대 기후, 냉대 기후를 보이고 사는 동물, 식물도 달라진다.	B4



활동지 1

한국의 산




산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산 중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명한 산은 어디인가요?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



 다음은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고 한국의 산과 관련된 이야기와 여러분 나라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세요.

울산바위 이야기



산신령이 금강산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산신령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까?’

고민 끝에 산신령은 전국 각지의 훌륭한 모양의 바위들을 모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큰 바위들은 모두 금강산으로 오라고 했지요.

이에 전국의 큰 바위들은 모두 금강산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한반도 남쪽 끝, 경상도 울산에 있던 울산바위도 소식을 듣고 급히 금강산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울산바위는 둘레가 4km나 되는 덩치가 크고 무거운 바위였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밤이 되었을 때 겨우 설악산에 도착했을 뿐이지요. 날도 저물었고 울산 바위는 너무 피곤했어요.

“밤도 되었고 늦었으니 이곳에서 하루 자고 가야겠다.”

그렇게 울산바위는 편하게 하룻밤을 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다시 금강산으로 떠나려고 했지요. 그때 금강산에서 산신령이 보낸 심부름꾼이 왔어요.

“이미 금강산에 놓일 바위는 정해졌으니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산신령의 심사에 지각한 울산바위는 금강산에 들지 못한 것이예요.

울산바위는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창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울산바위는 하룻밤 잤던 설악산이 마음에 들었어요. 설악산이면 괜찮겠다 싶어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악산을 보면 한눈에 보이는 지금의 자리에 눌러앉았다고 해요.



활동지 2

울산바위 이야기



울산바위 이야기로 만화를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바꿔도 좋아요.

여러분 나라에도 유명한 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알고 있다면 한번 소개해 보세요.
